

2024년 3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3.28. 14시30분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8/10	3	1	12	○		

○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손영준, 안호림, 허인순, 서신석, 진한수,
안성희, 이상현, 이성우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 경영진 외 : 시청자센터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8	-	-	-	18	-	18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8	-	-	18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p>보도</p>	<p>뉴스 카테고리 '제보'의 '제보 영상' 코너에 2월에만 8개 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 영상 관련 사항을 보면 : 제목, 영상, 한 줄의 제보 영상 관련 내용이 전부이다. 영상 또한 소리가 나지 않아 제보 현장에 대한 현장감을 느낄 수 없었다. 영상 제보자들의 성의와 시청자들에게 신속하고 신뢰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제보자의 연락처가 있으므로 담당 기자를 통한 제보자와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한 후에 제보 영상 내용에 대한 간략한 기사 내용을 작성하여 제보 영상과 기사 내용을 함께 올리는 것이 제보 영상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방송뉴스라고 생각한다. (서신석 위원)</p>	<p>저희가 인력이라든가 자본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이 온라인 쪽에 대한 신경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온라인으로는 콘텐츠 조금 더 만드는 정도로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시청자의 관심도에 따라서 제보 영상을 '주간 랭킹', '월간 랭킹'으로 분류하여 제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홈페이지에 분류를 하였습니다. 조금씩 인력 사정도 나아지고 있어서 전체를 다 하진 못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p> <p><24.3월 조치></p>	<p>'24.2월</p>
<p>보도</p>	<p>연합뉴스TV에서 다루지는 않은 것 같은데, 타 매체에서 코로나19 이후 헌혈 급감으로 소아나 난치병 환자 치료에 쓰이는 특정 혈액제제 '면역글로불린'이라는 의약품 품귀 현상으로 위중 환자들이 원정 진료까지 다니고 있는 현실이라는 보도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국내보다 2배 이상 비싼 혈액을 수입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헌혈을 통한 혈액 수급이 불가피한 현실 속에서 헌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합뉴스TV에서 심층취재 및 기획 등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안성희 위원)</p>	<p>[비즈&] 코너에서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른 기업들에게도 좋은 영향력 및 국민들에게 헌혈에 대한 인식을 아래와 같이 홍보했습니다. 3월 15일 방송 ▶ 현대모비스, 임직원 헌혈 캠페인으로 '생명나눔' 현대모비스가 올해도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직원 헌혈 캠페인을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4년부터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에만 700여 명의 직원이 혈액 나눔을 실천했습니다.</p> <p><24.3월 조치></p>	<p>'24.2월</p>
<p>총 건수</p>		<p>2건</p>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내용	조치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4. 01. 01.~ '24. 12. 31.)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홍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심평변호사	-	18.7.1.~24.6.30
임윤주	1985.08.28	(현)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	21.11.01~25.10.31
안지연	1989.06.27	(현)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	23.02.01~25.01.31
박세진	1981.08.06	(현)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	23.06.01~25.05.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4. 1. 1.~ '24. 12. 31.)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손영준	현)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전)국회 언론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학회	언론 학술	
부위원장	안호림	현)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편집위원	성정문화재단	문화	
위원	허인순	현)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 전)한진엔지니어링 설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	
위원	서신석	현)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무총장 전)한국유비쿼터스협회 부회장	전국학교운영위원 연합회	학부모 단체	
위원	강건기	현)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학기술 단체	
위원	진한수	현)법률사무소 익선 대표변호사 전)서초경찰서 상담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단체	
위원	안성희	현)선진노무법인 부대표 전)서울특별시 마을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 단체	
위원	이상헌	현)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전)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 팀장	대한상공회의소	경제	
위원	이성우	현)중소벤처기업인증원 인증지원실 과장 전)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외협력실 과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 등 소외단체	
위원	박화선	현)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실장 전)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 부부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변 동 사 항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 뉴스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각 당의 공천 과정과 이를 둘러싼 갈등이 주요 보도 내용입니다. 정당 지도자와 후보자에 대한 중요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각 당의 구체적인 총선 공약이나 정책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공천이 되고 누가 낙천되는지 못지않게 시청자에게는 정책이 중요합니다. 정책 이슈가 실증된 것은 각 정당에 1차 책임이 있지만, 우리 언론은 총선 보도에	우리 정치권도 그런 공천 파동을 중심으로 흐름이 전개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정책 위주로 보도를 끌고 간다,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뉴스란 게 흘러가는 상황을 보도해야 되는데 흘러가는 상황을 도외시 한 채 당위성 있는 보도를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론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정치권이 함께 변해야지, 정책 경쟁 위주의 선거 보도를 이끌어낼 수 있	○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서 공천 위주의 보도 관행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투구식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봅니다. 각 정당의 구체적 정책과 입장을 비교 정리해 이를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손영준 위원장)	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앞의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는 것이지만, 정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책을 잘 내놓지 않습니다. 정당이 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서기 전에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총선과 관련된 정책 방향이 나온 것은 이번 주 들어서입니다.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서니까 이제서야 정책들을 발표하고 세종시 국회 이전도 나오고 이런 거죠. 아무튼 뒤늦게 정책을 내놨지만 그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꼼꼼히 따져서 제대로 평가하고 또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부각시키고 해서 정책 위주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보도 *시청자 불만활용</p>	저는 진행자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나운서와 앵커들이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앵커라고 하는 분들은 프로그램에 맞을 내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에 대해서 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시청자들이 봤을 때 저분은 대본을 숙지하고 방송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3월 2일 뉴스오늘 3부, 토요 와이드의 조서연 앵커가 뉴스 진행할 때 발음이 약간 버벅거리고 말 속도가 빨라서 시청자 입장에서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안호림 부위원장)	아나운서들 발음 버벅거리고 속도 빠르고 이런 부분들은 기본에 속하는 문제인데요. 원래 잘하는 분인데 당일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만, 시청자들에게 불편하게 보였다고 하면 시정하겠습니다.	○		
<p>보도 *시청자 불만활용</p>	3월 4일 7시 뉴스 여성 아나운서가 "정부에서 전공의들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한다고 엄포를 하였습니	'엄포'라는 용어 사용은 단신 기사를 기사가 이렇게 써서 아나운서가 그대로 읽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말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다." 이게 적절한 용어 사용인지 확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엎포는 사전적으로 실속 없는 말로 남을 위협하거나 호령하는 짓' 으로 매우 부정적인 말에 표현되는데 실속의 여부가 결과물을 의미하는 데 진행자가 판단하여 부정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여 정부를 불신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호림 부위원장)	씀하신 대로 엎포라는 말을 그냥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꼭 못 쓸 용어는 아니에요. 다만, 뉘앙스 자체가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고 했다', '경고 조치했다', 이렇게 하면 뉘앙스에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담당 부서에 제가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p>보도 *시청자 불만활용</p>	3월 12일 뉴스포커스 성유미 아나운서 패널 발언에서 '요런'이란 단어를 쓰던데 '요런'이란 표현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을 낮추어 사용하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이런'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 확인 결과 '이런', '요런'은 허용은 되지만 정확한 어휘 사용이 필요해 보였습니다.(안호림 부위원장)	성유미 아나운서가 '요런'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전상으로는 쓸 수 있는 있는 말이지만 뉘앙스의 문제죠. 약간 익살스러운 느낌이 들고 낮잡아 지칭하는 느낌도 들고 하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		
<p>보도</p>	3월11일 [출근길 인터뷰] 건강하려면 운동 필수!..."건강코치와 함께해요" , 강남구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운동 프로그램으로 구민들의 생활 속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 해 운영하면 좋을 듯합니다. 보건소 직원이 구내 경로당을 찾아가 기구 없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도 소개시켜 준다고 합니다. 수동적이고 구색 갖추기 식 행정이 아닌 찾아가는 적극적 행정을 보도해 주셔서 좋았습니다.(허인순 위원)	'출근길 인터뷰'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례 발굴, 보도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3월17일 불법 홀덤펍 업주 구속수사 원칙...내일부터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개월간 홀덤펍 등 영업장의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라는 내용의 보도였는데 홀덤펍 용어가 생소해 뭐지 하는 의구심이 있었고 진행하는 앵커우먼이 목이 메는지, 사례가 걸렸는지 진행이 매끄럽지 못해 아쉬웠습니다.(허인순 위원)	방송이라는 것이 젊은 사람들만 보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지적을 하실 때마다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리포트나 단신 내용이 짧아서 포함시키기 어렵다, 이전에 여러 번 반복해서 다 아는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방송은 누구나 다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대를 정해놓고 시청자 층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짧게라도 한 줄 새로운 용어는 의미를 붙여주도록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나운서들의 문제는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나운서들이 좀 더 프로 의식을 갖고 본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해야만 이런 실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보도	연합뉴스TV의 [토요와이드] 사회뉴스 3월 16일 "역대 최고 사교육비...잡는다고 하는데 이번 늘봄 학교는" 제목으로 안채린 기자가 방송보도 내용은 늘봄 학교 도입 근본 취지를 왜곡 시킬 수 있는 보도로 판단된다. 늘봄 학교 도입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 1차적인 목적이 있다. 본 방송에서 사교육을 잡기 위해 늘봄 학교가 시행되는 것처럼 느끼게 방송을 한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한다.(서신석 위원)	해당 보도 기자는 젊고 경험이 짧은 기자이다 보니 이 분야의 전문 지식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교육부로부터 사교육과 저출산 문제를 연결시키는 설명을 들었다면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 위원님은 교육 분야에 워낙 오랫동안 전문성을 갖고 종사하셨기 때문에 저나 해당 기자보다는 훨씬 더 사안을 바라보시는 통찰력이 있으실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이 전문가로서 이렇게 지적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그 내용이 대체로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이 리포트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냐라고 시청자가 느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해당 기자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얘기하겠습니다.	○		
보도	3월 9일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에서	우리가 현상만 따라다니며 보도를 하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극한 대치로 치닫는 의대 증원 관련 하여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잘 보도하였음. 특히, 의대 적정 규모를 둘러싼 논란과 벼랑 끝 몰린 지역 필수의료 붕괴 상황, 해외(독일)의 공공 의료 상황 및 의사 증원 해결 사례, 독일의 파업방식 등을 탐사하고 보도한 것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양측 입장을 보도할 때 우리나라 의대의 소규모 정원 양성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언급하고, 의사들이 제기하는 증원 문제점만을 단순히 언급하기보다는 심층 취재를 통해 의사를 2,000명 증원해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지, 의사들의 지역 쏠림 현상이 실질적으로 발생할지, 특정 의료분야로 의사들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지를 분석하였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강건기 위원)	다 보면 사실은 시청자들은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게 됩니다. 언론매체로서는 이슈에 대해 방향을 잡아 보도하려면 취재와 분석 노력을 단순한 현상 보도에 비해 몇배는 더 들여야 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만만치는 않은 작업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현상 나열보다는 분석과 규명을 추구하는 보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도	[현장의재구성] 인간영역 대체하는 AI의 진화...그 명과 암, 현장의 재구성에 대해 여러 차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만, 이번 이 섹션이 다룰 수 있는 주제와 구성이 무궁무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내용 역시 다른 보도와 큰 차별성이 없다는 점 등에서 아쉬움을 느꼈습니다.(진한수 위원)	'현장의 재구성'이라는 포맷 자체가 그렇게 심각하게 콘텐츠를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보다는 흥미 또는 다양한 뉴스 방식을 추구하면서 만든 포맷이기 때문에 일반 리포트나 단신처럼 그렇게 다양하고 분석적인 콘텐츠를 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일반 뉴스에는 잘 안 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상들을 활용하고, 딱딱한 뉴스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형식의 보도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도	[뉴스프리즘] 아이 낳으면 1억 원 주는 회사.....대부분엔 '언감생심' - 3월 16일, 우리나라의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졌으며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하여 출생률을 높이려고 하지만 오히려 출산율은 감	저출산 문제는 우리한테는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죠. 안보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경제의 동력을 제대로 끌고 나가지 못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냥 인구가 줄어든 상태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강구하자, 저는 이렇게 할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소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의 감소로 인한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혼란은 예정된 미래이지만 쉽게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쉬운 점은 언론의 사회적 역할을 감안할 때 국가지대사인 출산율 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설익은 정책으로 예산만 많이 쓰고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는데 후속 보도 등을 통해서 사회적 공론의 장으로 반드시 끌어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려서 인구 유지가 어렵다면 인구감소 및 노령화 시대에 같이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한 같이 제시함으로써 예정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아닌 극복할수 있는 사회적 과제를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박화선 위원)</p>	<p>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줄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저출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결국은 이민 정책 같은 것도 많이 논의하더라고요. 저희도 이민청도 만든다, 이민 문제 고려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민 문제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전에 어떻게든 출산율을 좀 높여서 안보와 경제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사회적 제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보도</p>	<p>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서 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 - 3.18, "오는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에서도 기후 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라는 멘트로 시작해서 기후 동행 카드를 서울-김포를 오가는 시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오는데, 기후동행카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 기후 동행 카드에 대한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시청자들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 동행 카드가 시행된 지 얼마 안된 만큼 화면상 인포그래픽이나 앵커의 설명 멘트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지면 기사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 경전철에서도 월 6만 원대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 동행 카드'를 쓸수 있게 된다"라고 보도하고 있다.(박화선 위원)</p>	<p>리포트.단신을 작성하거나 그래픽을 만들 때 그동안 여러 번 뜻을 설명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 알 것 같아서 생략했다, 분량이 짧아서 넣을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사실 한 줄이라도 설명을 넣어주는 게 맞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p>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사례로 포스텍을 제시했는데, 포스텍은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는 특수한 사례이고, 대학 자체 혁신사례로 미네르바 대학을 제시했는데, 미네르바 대학은 온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는 캠퍼스가 없는 대학 사례로 대학 폐교에 대한 혁신 노력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동떨어진 사례로 보였습니다. 오히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대학의 선택적 육성 과 폐교가 불가피한 학교를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교를 기업의 연수원으로 유치한다든지, 지역사회의 특성화된 교육의 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연구하는 것이 지방대의 폐교, 아울러 지방의 붕괴를 막는 하나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박화선 위원)</p>	<p>포스텍이 지역 대학의 일반적인 성공 내지 차별화 사례가 될 수가 있느냐 하는 지적 같습니다. 포스텍은 처음부터 대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기반이 완전히 형성된 상태에서 신규 진입한 대학입니다.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대학이 생존방안으로 가야 할 길로 포스텍을 거론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 대학들의 피부에 와닿을 사례를 구해서 취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p>	○		
보도	<p>[현장의재구성] 인간 영역 대체하는 AI의 진화...그 명과 암 3.18. '현장의 재구성'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AI 아나운서(J-NA)와 한국도로공사의 AI 캐스터(얼굴 변형)를 각각의 특징을 살려 소개해 주어 AI 기술이 생활 속에 이미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범죄연루 등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례도 제시하고 있어 의미 있었으나, 다만 '이상한 케이스'로 중간에 소개된 세계 최초 AI 성추행 논란 사례는 실제 AI 성추행 케이스가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일종의 가십 거리에 해당하는 것이지 전반적인 맥</p>	<p>'현장의 재구성' 이 부분은 말씀하신 내용처럼 실제 성추행 케이스로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상한' 사례라고 얘기 하긴 했지만 이런 부분은 주의하라고 관련 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락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사례를 삭제하거나 '해프닝'이 있었다는 내용의 자막을 추가하는 것이 나았을 것 같습니다.(안성희 위원)</p>				
<p>보도</p>	<p>[노사연합] "무단 퇴사 직원들 때문에 중국집 매출급감...3,500만원 배상" 현실은? (3/6) '노사연합'은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로만 소개되고 있는 코너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이슈들을 관련 전문가들이 '노측'과 '사측'의 입장에서 무겁지 않게 다루고 있어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①실제 사안에서는 130만원이라는 비교적 소액 배상만 인정되었음에도 해당 영상 제목에 '3,500만원 배상'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3,500만원 배상'을 받은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②민법 제660조 제1항은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연 설명 없이 '당장 내일부터 그렇게 써서 제출하면 안 나와도 되는 거죠'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안성희 위원)</p>	<p>'노사연합' 이 부분도 중국집 사장님 주장 3,500만원 배상 이게 따옴표로 돼 있고 그 뒤에 현실은 하고서 이제 물음표가 돼 있습니다. 제작진들 입장에서는 뒤에 현실은 하고 물음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앞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걸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예를 들면 "3,500만원 물어내!" 이런 식으로 처리해 배상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수도 있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p>	○		
<p>보도</p>	<p>지난 3월 15일, [김대호의 경제읽기] 내일부터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 원' ...대부분의 국민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한 지원금 정책 변경에 대한 배경과 취지, 실제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비자의 시각에서 쉽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단순 팩트를 전달과는 달리 쉽게 풀어 설명해</p>	<p>김대호 박사님은 본인이 워낙 경제 이야기를 쉽게 잘 풀어나가셔서 호평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헌 위원)				
보도	3월 19일자, '연예인 열애에 광고 기업까지 불똥...형평성 논란도'...기업까지 불똥이라는 제목과 달리 해당 연예인이 광고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내용이었고, 형평성 논란도 남성보다 여성 연예인이 더 공격을 당한다는 얘기인데 기사 제목으로 예상하는 내용과는 다소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뉴스 제목과 보도 내용이 좀 더 일치감 있게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헌 위원)	연예인 문제는 제목이 약간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기업이 예를 들어서 광고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모델이 계속 가치가 있으면 사실 광고모델 재계약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연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종료시켰다고도 볼 수 있고 환승연애 아니니 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댓글창도 닫고 그랬다고 볼 수 있으니까 '불똥'이란 표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 이 부분은 저도 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누구하고 형평성인지 연예인과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인지, 남녀의 형평성 문제라고까지 생각이 미치기엔 제목이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기자의 뜻은 여성 연예인이 상대적으로 남성 연예인보다 이런 스캔들 때 광고에 취약하다 이런 뜻이었다고 하면 남녀간의 형평성 문제였겠죠. 데스크킹 과정에서 적절하게 수정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보도	'전체 종사자 중 1%!...버스 모는 여성 기사들(3.8.)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날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언론에서도 이날 기업 캠페인이나 행사, 단체의 집회 등 여러 소재의 뉴스를 보도한 와중에 연합뉴스TV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	세계 여성의 날 집회 기사 지적해 주신 부분은 양대 노총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신이어서 분량이 짧다 보니까 양대노총의 공통적인 부분 주장 써주고, 그다음에 여가부 장관이 사표 처리 이후에 첫 여성의 날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한 줄을 붙여준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주로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의 비율이 매우 낮은 직업군을 다루었습니다. 뉴스는 양대 노총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클로징 멘트로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입장을 밝히고 새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성 차별을 가속화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로 마무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제목에서부터 양대 노총을 드러낸 만큼, 그들의 공통된 주장을 보다 상세히 전하거나 기왕 민주노총의 특별한 입장을 소개했다면, 한국노총이 갖고 있는 입장도 함께 소개해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성우 위원)</p>	<p>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민주노총 입장을 쓴 것입니다. 해당 부서의 그런 입장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요. 시정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좀 공평치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공통적인 주장을 한 부분 중에 하나는 떼서 한국노총 주장으로 써주고 민주노총 주장을 그다음에 써주면 되는 문제인데 처리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남습니다.</p>			
<p>보도</p>	<p>3월 12일 뉴스센터12(오후 12시 11분경)에 현직 교사 8명이 사교육업체로부터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넘기고 6억 6천만 원을 받다가 적발된 사건이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자막 뉴스에 “교사 8명, 문항 공급 조직...학원에 6억 6천 억 받아”로 오타를 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가 보도전문 채널인 만큼 시청자들의 기대와 신뢰가 남다른데,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자막 뉴스의 오타를 여러 번 지적하셨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이성우 위원)</p>	<p>자막 문제는 망신스러운데요. 사실은 자막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저는 차라리 자막 수를 줄였으면 한다고 얘기합니다. 잘못된 자막 때문에 오해 받고 방송사 이미지에 손상이 간다면 차라리 자막 수를 줄여서 실수도 덜 일어나게 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정치 대담 같은 경우 자막 실수가 상당히 파장이 클 수가 있어서 정치 대담 자막 수는 줄이는 게 좋겠다고 보도국장에게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물론 자막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오디오로만 이해하는 것보다는 시청자에 대한 전달력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겠지만, 오류로 인한 이미지 타격과의 비교 형량을 통해 방침을 설정하는 문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p>	○		